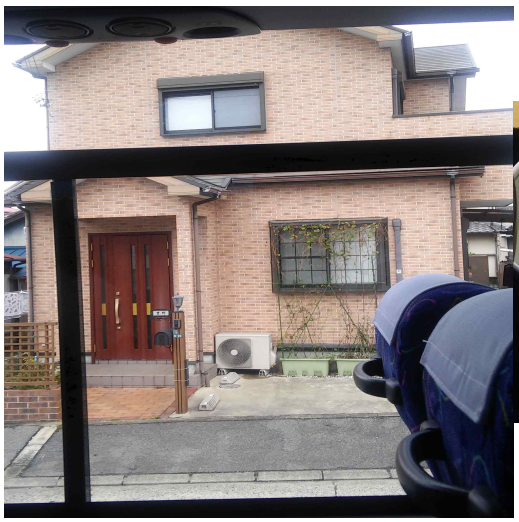
일본의 작은 문화 탐방

국어국문학과 14학번 조영교

1. 서론

국제 통상에 적성과 흥미가 맞아 국제학부를 복수전공 하던 중 우연치 않게 일본 문화 탐방 기회를 접하게 되었다. 그동안 베트남, 미얀마 등 매번 방학 때마다 여러 나라가 공지되었는데 딱히 흥미 있던 나라가 없어서 지나쳐만 왔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일본 문화 탐방 기회였는데 마침 동생도 일본 여행을 다녀왔었고 나 역시 한번쯤은 가보고 싶었던 나라였기에 지원하게 되었다. 운이 좋았던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고, 설레는 마음으로 3박 4일간의 너무 좋아서 아쉽고 또 아쉬웠던 짧은 문화 탐방을 다녀오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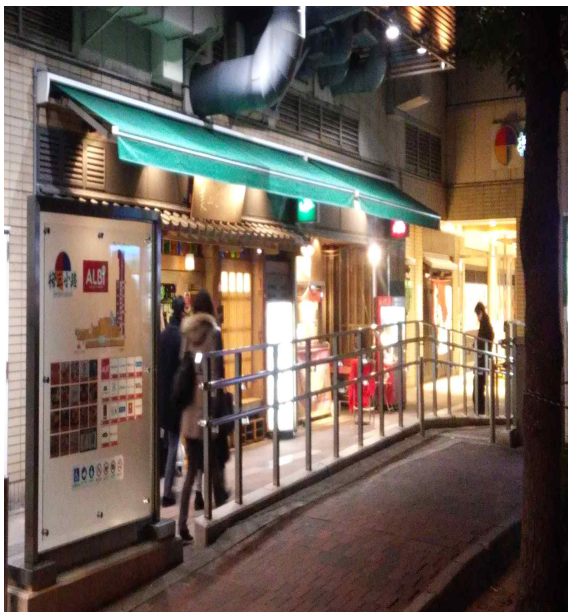


처음에는 특별한 주제나 관심 분야를 정하고 일본을 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보이는 주택들, 상가들, 건물들을 보니 한국과는 다른 이질감이 들면서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다. 건물들이 하나 같이 다 작고 아기자기하게 밀집되어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저런 공간까지 건물이 지어져있나 싶을 정도로 조밀한 곳도 있었고 특히 단독 주택들은 대부분 대문 하나 들어갈 정도로 좁은 공간과 이를 커버하기 위해 복층 구조로 되어있었으며 다세대 주택 역시 촘촘하게 많은 세대가 거주하게끔 되어있었다. 버스 창 밖으로 보이는 그런 작은 건축물들을 보며 왜 이런 특징을 지니게 된 것인지 궁금증이 생겼다. 또 처음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나오는 소꿉놀이 같은 작은 식기들을 보며 단순히 건축 문화에 국한되지 않고 식기, 생필품 등 사회 전반적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아기자기한 작은 문화 특성들을 느끼며 이를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싶어졌다. 왜 이런 문화를 가지게 된 것인가, 어떤 부분들에서 이런 모습이 보이는가, 또한 이를 이런 문화를 체험하며 느꼈던 점들을 다룰 것이다.

2. 본론

일본의 다양한 작은 문화

우선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의 작은 문화는 건축물에서 대표적으로 찾을 수 있다. 처음 간사이 공항에 도착해서 버스를 타고 오사카 외각을 지나면서 일본의 작은 문화를 강렬하게 느낄 수 있었다. 도심의 빌딩을 제외하고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비롯하여 식당, 술집 등의 상가 건물과 사무실 등 빌딩이나 큰 식당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오밀조밀한 구조의 작은 건축물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땅을 좁게 차지하고 높이를 세운 주택 구조가 한국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구조였기에 더 눈길이 갔었다. 다세대 주택 역시 많은 가구가 모여 있는 건물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보던 것보다 더 작은 크기로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특이점이 대다수의 건물들이 한쪽면을 향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상가 건물들의 경우 정말 독특했던 것이 건물의 높이도 테마파크 같이 낮았지만, 출입문이 신기할 정도로 작았던 것이다. 어느 몇 개 가게가 그러한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가게가 오밀조밀 낮은 위치로 밀집해 있는 것이 마치 애니메이션 속 한 장면 같은 낯선 즐거움과 신기함을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작은 건축물이라는 공통점 속에서도 도시 별로 특징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처음 오사카에서 느꼈던 작은 건축물들이 주로 다세대주택이나 현대식 개인 주택과 상가들에서 찾을 수 있었다면 교토에서는 전통 목조 주택 들이 많이 남아있어 전통 주택으로 그 양상이 보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건축물 외에도 일본의 작은 문화는 다양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자유 여행을 다니며 탔던 지하철이나 버스의 좌석 역시 한국에서 보다 작고 좁은 모습을 보였으며 라멘, 돈부리, 이자카야 등 다양한 식당에서도 좌석 배치가 작고 촘촘히 구성되어 넓직히 떨어진 좌석을 중요시하는 한국과 다른 모습이 색다르게 느껴졌다. 또한 일본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것들 중 하나인 아기자기한 식기들 역시 식사 할 때마다 곳곳에 작은 사이즈로 눈에 띄며 일본 특유의 작은 문화를 엿볼 수 있었다. 볼펜, 동전주머니, 손수건, 캐릭터상품, 술잔 등 다양한 팬시 및 잡화들도 청수사 등의 관광지 주변에서 자주 보이며 눈을 즐겁게 했다. 이 외에도 음식에서도 일본의 작은 문화를 느낄 수 있었는데 그릇이 작아서인지 담겨서 나오는 음식들도 작은 크기로 조금씩 여러 가지

로 나왔으며 떡이나 빵 젤리 등의 간식들도 동물 모양 이라던지 작은 크기와 귀여운 모양을 강조한 것들이 눈에 띄었다. 편의점 등에서도 소분되어 있는 작은 사이즈의 레토르트 음식들이 많이 보였다. 또한 잔돈이 많이 생겨 자주 볼 수 밖에 없었던 일본의 동전 역시 게임 화폐마냥 작은 크기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미지 출처: Google>

일본 속 작은 문화의 원인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분야와 양상으로 나타나는 일본 특유의 작은 문화는 어떻게, 왜 나타나게 된 것일까? 먼저 일본의 건축 문화의 경우 여러 가지 영향이 섞여 나타나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사람들은 실용성과 효율성을 중요시 여기기에 도심 외각에서의 넓고 한적한 생활보다 좁은 공간일지라도 문화와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도시에서 사는 삶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때문에 비싼 땅 값과 한정된 도시에서 많은 인구가 살기 위해 적합한 건축 모형이 지금과 같은 작은 건축 스타일을 만들어 냈던 것이다. 이는 단순히 주택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밥집, 술집 등의 상가 건물과 사무실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한국식의 고층 아파트를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좁더라도 마당을 가진 개인 주택을 진정한 집이라고 선호하는 성향과 잦은 지진의 영향 때문에 지금의 오밀조밀하고 작은 크기를 보이는 건축물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 외에도 목조 자재가 그 작은 문화를 한층 더 고풍스럽게 만드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습한 기후 영향으로 목조 자재가 건축물에 많이 쓰여왔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작은 식기 문화는 일본인들의 식습관 때문이라 볼 수 있다. 한국과는 다르게 일본은 식사를 할 때 국물 요리도 젓가락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식기자체를 들고 입에 가까이 대어 먹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들고 먹기 위해서는 크고 무거운 식기가 아니라 최대한 가볍고 작은 식기를 선호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의 식기 문화가 작은 크기로 발달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작은 식기의 영향 때문인지 섭취하는 음식의 양 역시 많지 않은 편이라 음식의 양에서도 작은 문화를 찾아볼 수 있는 것 역시 재미난 사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음식의 경우 1인가구 및 개인주의 성향으로 인한 혼밥족이 많기에 소분된 적은 양의 음식 문화가 발달하였다.

이 외에도 일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물건들의 발달 원인은 일본 산업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크기의 부품으로 같은 제품을 똑같이 만들면 그것은 표절이 되지만 이를 작게 축소하고 새로운 조합이나 변형을 꾀하면 그것은 새로운 제품, 물

건이 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서양 나라들과 일찍이 교류하며 발전 방법을 도모한 것이 이런 전략이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습득하고 모방하여 일본 문화를 담은 새로운 것으로 재창조 하는 것에 뛰어났기에 작은 물건들이 발달하는 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인들은 귀여운 것을 좋아하고 귀엽다는 말을 큰 칭찬으로 받아들이는데 이런 선호 사상이 작고 아기자기한 물건들의 발달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3. 결론

이렇게 3박 4일간의 오사카, 교토, 고베, 나라 4도시들을 빠르게 둘러보는 동안 제일 크게 느꼈던 일본의 작은 문화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고 그 양상과 발달 원인을 살펴보았다. 이번 일본 문화 체험을 통해 그 나라의 문화를 제대로 느끼고 알기 위해서는 직접 가서 보고, 만지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본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았었는데 막상 가서 느끼는 일본은 내가 예상하던 것과는 많이 다른 느낌이었고 그랬기에 더욱 더 좋았던 경험이었다. 만화, 드라마에서나 간접적으로 무심하게 보았던 작고 오밀조밀한 주택들과 가게들을 두 눈으로 보니 더욱 생생하고 흥미롭게 느껴졌고 이 외에도 식기, 음식, 기타 잡화용품 등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나타나있는 것 역시 와서 비로소 느낄 수 있었다. 때문에 그 원인까지 궁금해졌고 이렇게 조사하고 찾아보며 지식적인 충족감과 문화 체험을 더욱 알차게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또한 문화의 힘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일본이라는 나라에 특별한 관심도, 애정도 없었는데 그 나라만의 독특하고 매력 있는 문화를 느끼고 오니 관심이 가고 알고 싶어졌고 더 자주 더 오래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 짧은 일정 속에서 유명 관광지 위주로 속성으로 맛보았던 일본 문화 체험 이었기에 다음에는 일본의 작은 건축물과 인테리어, 소품 등을 더욱 자세하고 심도 있게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남기며 이만 보고서를 마치고자 한다.